

共同 出題의 問題點

朴 道 淳

(高麗大 教育學科)

1. 序

大學入學 學力考查의 出題方法에 대한 論議에 앞서 大學入學 餘銜에서의 大入 學力考查의 位置와 性格을 明瞭히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大入 學力考查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出題方法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大入 學力考查에 대한 基本 立場의 差異는 ‘共同 出題’와 ‘大學別 出題’의 論議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學生 選拔 準據로서의 大入 學力考查는 高等學校 教科目 中에서 選拔하여 이들 教科目의 學力, 즉 學業 成就度를 測定하고 있다. 이러한 學力考查의 特性은 學生 選拔의 準거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高校 內伸成績의 절대적인 부분이 教科 成績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大入 學力考查는 高校 內伸制度와 더불어 이들 學業 成就度를 二重

査定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大入 學力考查가 명칭 그대로 高等學校 교과과정의 學力을 측정하고 있는한 그것은 근본적으로 高校 內伸成績의 不信(?)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大入 學力考查의 實施는 限時的인 것이 될 것이다.

또한 大入 學力考查가 大學에서의 修學 能力을 測定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大入 學力考查의 當爲性이 認定되기 위해서는 大入 學力考查가 大學에 入學하여 훌륭히 학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입 학력고사는 이러한 기능을 출발부터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의 대입 학력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 정도 화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입 학력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 정도가 아니라 대학 修

學 能力 정도를 判別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대입 학력고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學業適性試驗’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대입 학력고사하면 으레 ‘高校教育 正常化’ 측면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再考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입 학력고사가 ‘學業適性試驗’으로 대치된다면, 中等學校 教育도 大學 入試의 영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고교 내신 제도가 대입 학력고사와 더불어 교과서 중심의 학업 성취도를 二重 査定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대입 학력고사는 限時的인 것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2. 大入 學力考查 共同 出題의 問題點

大入 學力考查의 실시가 前

提되었을 때 그 出題方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大入學力考査를 大入銓衡制度의 一部로 파악하고 그 전형 제도의 발전 방향과 얼마나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과 대입 학력고사의 질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얼마나 效果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입 학력고사가 현행의 ‘共同出題’方式을 그 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왜 그러한 共同出題가 바람직하지 못한가를 大入銓衡制度의 發展方向과 현실적인 問題點의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大入學力考査 문제를 共同出題方法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번째 근거는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일부분으로 대입 학력고사의 수행이 ‘大學의 自律과 責任’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基本立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학 입학 전형 방안의 일부분으로 대입 학력고사가 공동출제 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대학이 자율적인 選拔權을 가져야 한다는 論理와 같은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입 학력고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대학에 주어진다든 것은 대입 학력고사의 실시, 채점의 절차와 책임이 대학에 있다는 것과 함께 대입 학력고사의 ‘內容’도 대학이 決定(이 경우 대학이 출제를 하는 것과 제3기관에서 출제된 문항을 선정하는 것 모두를 대학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입 학력고사의 핵심은 출제되는 內容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출제 내용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기초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제의 권한이 개별 대학에 위임되지 않고는 대학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고 그 특성에 부합하는 특징 있는 문제의 출제는 불가능해진다. 대학의 특성과 전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학교에 필요한 학생을 그 학교 스스로 출제한 내용에 의해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敎權의 本質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수를 강한 연대감으로 묶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共同出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 학력고사의 內容을(실제로는 節次까지) 劃一化시키는 것으로 이는 大學의 自律的 學生 選拔이라는 大前提에 어긋나는 것이다. 大入學力考査가 劃一化된다는 것은 또한 모든 中等教育을 劃一化시킴으로써 학교별로 ‘경쟁적’ 입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뿐 中等교육이 敎育課程의 本質에 가깝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大入學力考査의 問題를 共同出題로 하지 말아야 하는 두번째 근거는 大入學力考査의 主機能이 中等學校 敎育의 正常化에 있기보다는 選拔機能에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대입 학력고사가 中等敎育 正常化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정말로 대입 학력고사가 中等敎育 正常化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대입 학력고사의 교과목이나 內容 또는 채점 기준을 통해서 中等敎育 正常化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대입 학력고사가 中等敎育 正常化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대학 입학 전형 제도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볼 때 中等敎育 敎育 正常化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는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은 그 주된 것이 ‘고교 內伸制’라고 할 수 있다. 대입 학력고사가 현재와 같이 中等敎育 敎育과정 內容의 성취 정도를 다루고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 출제하든 곧 中等敎育에 영향을 미치게는 되지만 ‘中等敎育 正常化’에 기여하기는 어렵다. ‘共同出題’든 ‘學校別出題’든 대입 학력고사가 中等敎育을 형식적인 면에서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內容的인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中等敎育 敎育 正常化’라는 이름 아래 ‘共同出題’ 또는 ‘學校別出題’를 옹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대입 학력고사는 그 성격으로 보아 ‘선발’ 기능이 보다 강조되는 대학 입학 전형 제도 속의 한 要素라고 볼

수 있다. 학생 선발의 권한이 대학에 있어야 하고 대학에 알맞게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대입 학력고사의 內容을 대학에서 결정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직접적 참여란 ‘內容’ 결정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內容’ 결정에의 참여야말로 專門性을 갖고 있는 大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大入 學力考查 問題를 共同 出題方法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세번째 근거는 大學의 權威와 信賴에 관련된 問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흔히 대학별로 출제가 이루어지면 각 대학의 출제 능력 부족 때문에 학력고사의 질이 낮아질 것이고, 관리 능력의 不在 때문에 문제의 보안을 비롯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출제 능력의 限界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낮은 質의 문제를 출제했던 경험적 자료(과거의 대학 본고사를 바탕으로 한), 일부 대학에서의 관리 능력에 회의론을 가질 만한 증거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입 학력고사의 質을 어떤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와 대학의 능력 부족이라는 不信에 의한 ‘共同 出題’의 合理化에 관한 것이다. 공동 출제에 의한 대입 학력고사의 질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볼 때 신뢰성과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는 우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당성과 독자성이란 측면에서는 학교별 출제가 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타당성이란 대학 나름대로의 평가 목표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측정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독자성이란 측면에서는 학교별 평가가 아니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제도도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어려워진다. 학력고사의 출제가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과 같다. 설령 부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어야지 대학별 학력고사 문제가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동 출제된다는 것은 논리의 전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출제 능력도 근본적으로 대학의 필요에 의한 출제가 인정된다면(즉 필요한 과목을 대학별로 선정하여 학력고사를 출제한다면) 그리 커다란 문제로 제기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늦어도 '90년대 중반까지 대학별 입시 전형 제도의 자율성·독자성을 인정한다는 교육개혁심의회 안이 시행된다면 대학별 출제는 불가피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입 학력고사 문제를 공동 출제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네번째 근거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의 입장과 진로 지도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대학 진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는 수험자의 적성이나 장래 진로에 관한 엄밀한 고려없이 세칭 일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아무 과나 무작정 택하고 이를 위해 소신 지원을 하지 못하고 눈치와 배짱에 의해 지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공동 출제를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생기는 대학의 서열화 현상(현재도 있지만 공동 출제의 방법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때문에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대학별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우선 대학의 서열화 현상이 감소될 것이고 대학별 시험의 특성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진학하려는 과를 사전에 선택해서 준비를 하게 되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인력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아도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대학별 출제를 하게 되면 대학들은 대학에서의 학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 내용을 탁월하게 특성화 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대학교육의 충실화 내지는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우기 '90년대에는 전·후기의 개념이 없어지고 수시로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교육개혁심의회 안이 실현된다면 대학별 학력고사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대입 학력고사 문제를 共同 出題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하

는 다섯번째 근거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 관리상의 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전·후기에 획일화된 공동 출제를 하는 경우 문제지의 보완과 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어느 한 지역이나 한 학교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전국에 공동 출제된 문제를 백지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를 관리하는 학교 당국의 무책임을 염려한 나머지 중앙에서 모든 해당 대학에 사람을 파견하여 관리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번거로운 일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 출제의 기본 입장이 大學의 不信(그것이 질적인 것이든, 관리상의 것이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별 출제가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대학의 責任 아래 수행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나 번거로움이 오히려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문제지의 인쇄, 보관, 배부 등에까지 전국 규모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 출제 관리상의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다.

대입 학력고사 문제를 공동 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섯번째 근거는 '공동 출제하는 것이 문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일반적인 논리의 검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동 출제가 유리하다는 것을 주장할 때 흔히 공동 출제는 수 많은 전문가의 참여와 집중적인 검토가 문제

출제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별로 출제하는 것보다 문제의 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대학별로 출제할 때는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고 집중적인 검토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대학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대학에서 문제의 출제에 동원된 전문 인력이 결코 부족하지는 않으며 집중적인 검토도 결코 소홀히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가 출제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별 출제가 이루어질 때 대학별 출제위원회가 상설 운영되어 보다 긴 시간 동안 문제 출제에 신경을 쓴다면(보통의 경우 대입 학력고사에서 문제 출제 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으나 학교별 출제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만 취한다면 1~2개월 이상의 문제 출제 기간은 가능해짐) 훨씬 양질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문제의 질이 거의 문제 출제 기간과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대학별 출제에 매우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맺는 말

대입 학력고사의 문제를 '공동 출제'하는 것이 좋은지 '학교별 출제'를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대입 전형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하는 점과 현재의 '공동 출제' 방식이 어떻게 개선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학교별 출제'를 주장한 많은 근거들은 현재의 '공동 출제' 방식이 개선된다면 상당히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입시 전형 제도가 교육개혁 심의회에서 제시된 것처럼 전형 방법, 전형의 내용, 모집 시기 및 절차 등에서 모두 학교의 자율적 제량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진다면, '공동 출제'에 의한 대입 학력고사는 학교에 따라 선정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전형 자료에 불과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업 적성 시험'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대입 전형 제도의 발전 방향에 근거해 볼 때, 대입 학력고사의 출제 방법은 가능한한 학교별 출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공동 출제'에 의한 대입 학력고사 문제의 작성이 필요없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출제 방법에 의한 대입 학력고사 문제의 작성은 근본적으로 일부 학교에서 活用할 수도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전형 자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할 뿐 아니라 적어도 경미 절감의 측면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